



판매회사  
내부직원용

#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투자신탁(UH)[주식]

2025년 03월말 기준

##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산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두자산신탁(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미달러)[주식])은 중국 상해 또는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된 A Share 주식 가운데 우수한 기업지배구조와 성장성을 지닌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환헤지 전략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중국 A Share 주식에의 투자는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홍콩 리미티드(EastSpring Investments (Hong Kong) Limited)에서 운용업무를 위탁 받아 운용합니다.

##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465억 원

-모투자신탁 1,021억 원

펀드유형 주식형, 모자형, 종류형  
-모투자신탁 편입비 : 90% 이상  
-모투자신탁 주식편입비 : 60% 이상

## 설정일

(운용펀드 : 2007년 05월 07일)

- 클래스 A : 2007년 05월 07일
- 클래스 A-E : 2014년 06월 11일
- 클래스 C : 2007년 05월 07일
- 클래스 C-E : 2009년 09월 23일
- 클래스 C-P(퇴직연금) : 2015년 02월 24일
- 클래스 C-P(퇴직연금)E : 2017년 08월 14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 : 2015년 03월 18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2017년 09월 11일
- 클래스 C-W : 2014년 10월 16일
- 클래스 C2 : 2011년 01월 10일
- 클래스 C3 : 2011년 01월 10일
- 클래스 C4 : 2011년 01월 10일
- 클래스 C5 : 2011년 05월 09일
- 클래스 S : 2014년 04월 22일
- 클래스 S-P2 : 2016년 03월 15일

벤치마크 CSI300 in KRW(T-1) 90% + CALL 10%

신탁업자 국민은행

##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4영업일	5영업일
17시 경과후	5영업일	6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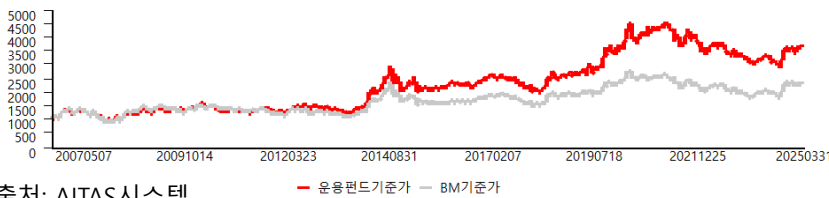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0.00%	-0.17%	13.25%	14.72%	-1.08%	-9.21%	36.96%	264.76%
클래스 A	-0.17%	-0.68%	12.15%	12.49%	-4.99%	-14.58%	23.93%	153.88%
클래스 A-E	-0.12%	-0.53%	12.48%	13.15%	-3.84%	-13.01%	27.68%	151.69%
클래스 C	-0.20%	-0.78%	11.94%	12.06%	-5.74%	-15.61%	21.49%	134.01%
클래스 C-E	-0.17%	-0.68%	12.15%	12.49%	-4.99%	-14.58%	23.93%	110.50%
클래스 C-P(퇴직연금)	-0.14%	-0.60%	12.31%	12.82%	-4.41%	-13.80%	25.79%	53.06%
클래스 C-P(퇴직연금)E	-0.11%	-0.50%	12.53%	13.26%	-3.65%	-12.75%	28.31%	39.49%
클래스 C-P2(연금저축)	-0.14%	-0.59%	12.33%	12.85%	-4.36%	-13.72%	25.98%	43.73%
클래스 C-P2(연금저축)E	-0.11%	-0.50%	12.54%	13.27%	-3.63%	-12.72%	28.38%	30.76%
클래스 C-W	-0.08%	-0.40%	12.75%	13.71%	-2.87%	-11.68%	30.89%	128.02%
클래스 C2	0.00%	0.00%	-	-	-	-	-	0.00%
클래스 C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클래스 C4	-0.18%	-0.70%	12.09%	12.38%	-5.18%	-14.83%	23.33%	81.48%
클래스 C5	-0.17%	-0.68%	12.15%	12.49%	-4.99%	-14.58%	23.93%	103.06%
클래스 S	-0.11%	-0.49%	12.56%	13.32%	-3.55%	-12.62%	28.63%	150.95%
클래스 S-P2	-0.10%	-0.46%	12.62%	13.45%	-3.32%	-12.30%	29.40%	56.80%
벤치마크	-0.14%	-1.16%	13.87%	19.42%	4.51%	-0.53%	25.21%	131.55%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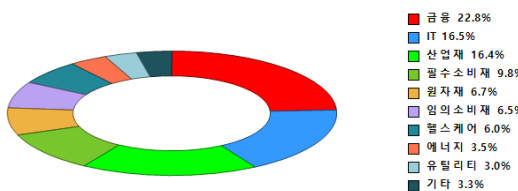
출처: AITAS시스템

##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03월말, 모두자산신탁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03월말, 모두자산신탁 주식비중)

종목명	섹터	비중(%)
Kweichow Moutai Co Ltd	필수소비재	4.3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td	산업재	3.8
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 Ltd	금융	3.6
China Merchants Bank Co Ltd	금융	3.3
Ping An Insurance Group Co of China Ltd	금융	3.2
Huatai Securities Co Ltd	금융	2.1
Luxshare Precision Industry Co Ltd	IT	2.0
Zijin Mining Group Co Ltd	원자재	1.8
Jiangsu Hengrui Pharmaceuticals Co Ltd	헬스케어	1.7
Bank of China Ltd	금융	1.6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2.0125% (판매 1.1%)
- 클래스 A-E : 총 연 1.4125% (판매 0.5%)
- 클래스 C : 총 연 2.4125% (판매 1.5%)
- 클래스 C-E : 총 연 2.0125% (판매 1.1%)
- 클래스 C-P(퇴직연금) : 총 연 1.7125% (판매 0.8%)
- 클래스 C-P(퇴직연금)E : 총 연 1.3125% (판매 0.4%)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1.6825% (판매 0.77%)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총 연 1.3025% (판매 0.39%)
- 클래스 C-W : 총 연 0.9125% (판매 0%)
- 클래스 C2 : 총 연 2.3125% (판매 1.4%)
- 클래스 C3 : 총 연 2.2125% (판매 1.3%)
- 클래스 C4 : 총 연 2.1125% (판매 1.2%)
- 클래스 C5 : 총 연 2.0125% (판매 1.1%)
- 클래스 S : 총 연 1.2625% (판매 0.35%)
- 클래스 S-P2 : 총 연 1.1425% (판매 0.23%)

(공통사항)

운용 0.84%, 신탁 0.06%,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 납입금액의 1.2% 이내
- 클래스 A-E : 납입금액의 0.6% 이내
- 클래스C/C-E/C-P(퇴직연금)/C-P2(연금저축) : 없음

**후취판매수수료**

- 클래스 S : 환매금액의 0.15% 이내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3월 중국 A Share시장은 CSI300 Index(CNY) 기준으로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소재, 필수소비재, 재량소비재, 금융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IT, 부동산, 통신서비스 업종 순으로 지수 성과를 상쇄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컸던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조정세를 겪었습니다. 3월 국가통계국 제조업PMI는 50.5로 이전(50.2) 및 예상치(50.4)를 상회하였습니다. 비제조업PMI 역시 50.8로 전월과 예상치 수치를 상회하였습니다.

펀드에서는 종목선택이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통신서비스 업종에서의 비교지수 대비 낮은 편입비중과 종목선택이 효과적이었으며 이어 필수소비재에서의 종목선택 역시 긍정적이었습니다. 반면 재량소비재와 금융 업종에서의 낮은 편입비중과 종목선택은 펀드 성과를 상쇄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펀드매니저는 단기적으로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분기 거시경제 지표는 안정세를 유지하며 예상에 부합하였지만 관세 압력 하에 시장은 2분기 수출의 큰 폭의 감소가 경제지표에 압박을 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4월말 정치국 회의에서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하락 위험은 낮아 보이지만 위험선호 심리가 주기적으로 냉각되어 펀드에서는 안정적인 실적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비용 효율성이 있는 개별 종목을 찾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향후 양질의 기업 발굴에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는 산업에 대하여 상향식 전략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